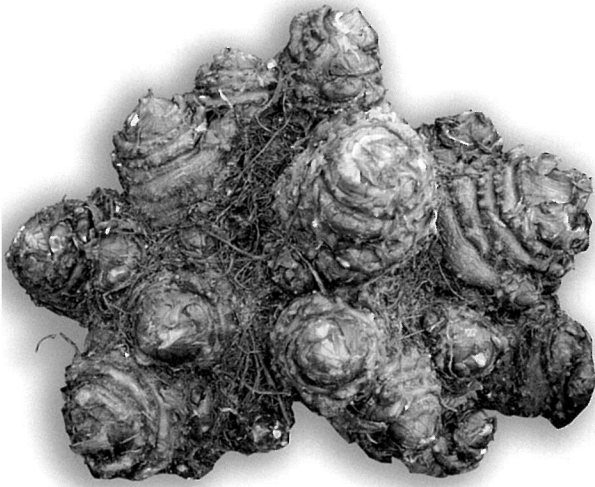


# 천궁(川芎)



산형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약용으로 재배하며 뿌리를 이용한다. 대장균이나 피부진균의 발육을 억제시키는 항균(抗菌)과 진정(鎮靜), 혈압강하(血壓降下)의 효능이 탁월하다.



안태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약용작물과

## 시들음병 피해 ●●●



천궁의 시들음병은 여름철 장마기 배수가 잘되지 않는 점질토양에서 발생이 빈번하며 경사지 재배시에도 배수관리가 잘 되지 않아 물고임이 지속되는 포장 하부에서 발생이 심하다. 처음에는 하엽의 선단부에 황갈색의 불규칙한 병반이 생기며, 병이 진전되면 잎끝까지 갈변되어 시들게 되고 결국 지상부 전체가 고사하게 된다. 시들음병 등 토양전염성병원균에 의한 병은 발생 후 방제가 쉽지 않으므로 배수상태 등 토양 물리성을 고려한

포장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 잎미름병 피해 ●●●

천궁 재배를 하면서 하고 현상과 더불어 수확량 감소에 가장 문제가 된다. 병이 발생하면 잎과 줄기에 불규칙한 담갈색의 작은 반점이 나타나 점차 타원형 또는 불규칙한 모양으로 커지게 되고 병이 발생한 주위가 노란 색깔로 변하며 심하면 잎 전체가 마르고 지상부 전체가 말라 죽게



된다. 늦은 봄 온도가 높아지고 비가 자주 오는 조건에서 발생이 시작되고 장마가 끝나고 고온의 높은 상대습도가 유지되는 7~8월시기에 병의 발생이 급격히 진전된다. 같은 지역에서 재배하는 천궁이라도 해발의 차이에 의해 잎마름병의 발생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해발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재배하는 천궁 일수록 잎마름병에 의한 피해가 크다. 병 발생 초반기 등록된 적용약제를 사용 방제토록 한다.

### 응애류 피해 ●●●



천궁 재배 시 지상부 잎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점박이용애와 차응애가 발생한다. 년중 발생하며 병징은 초기에는 흰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고 점차 황색으로 변하면서 말라죽는다. 잎 뒷면에 발생하는데 응애의 개체수가 많아지면 배설물, 거미줄 같은 것이 생겨 지저분해진다. 발생이 가장 심한 때는 여름철 고온건조한 시기이며 잎 뒷면에 1~2마

리 발생 시 등록된 농약으로 바로 방제해야 한다. 초기 방제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농약사용량과 사용횟수가 증가되어 방제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초기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 흰가루병 ●●●

천궁에 발생을 하는 흰가루병은 주로 장마기 전후인 6월, 8~9월, 늦게는 10월까지 고온 건조한 기상 환경에서 발생한다. 잎과 줄기에 발생하고 표면에 밀가루를 뿌려 놓은 듯한 병징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병해와 구별이 쉽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적인 기상환경에 따라 장마 전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잎마름병의 발생으로 식물체가 피해를 입고 난 장마 후 건조한 시기에 발생하기 시작한다. 심한 경우 잎마름병으로 지상부가 고사한 후 새순이 나와 생육중인 잎 표면에 감염하여 광합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뿌리비대에 영향을 미쳐 수확량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천궁의 흰가루병이 매년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당해 년도 기상 환경에 유독 발생이 심한 해가 있으므로 재배지 포장을 수시로 면밀히 관찰하여 발생초기에 병든 잎이나 식물체 전체를 조기에 제거하여 병 발생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약제가 없으며 초기진단, 감염 식물체의 제거가 매우 중요하다. ㉞

